

변천하는 사회와 현대 간호의 경향

<연세의대간호학과> 전 산 초

時代가 바뀌고 인류문화와 사회가 변천하여도 간호는 本質적으로 變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哲學的, 心理學的, 社會學的인 見解의 차이로 그 理解를 달리 할 수도 있고 그 標相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時代的 차이가 간호의 현실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本質이란 사람을 形成하고 그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作用이다.

現代看護는 靈的으로 成長하고 構造的으로 改善되고 그 變化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안정되어 가치있는 변화를 계속하고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現代看護의 과업은 실로 깊고 원대하며 정체함이 없이 앞을 향해 달리는 전진에서만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업의 변천

現代看護事業의 과업에 앞장선 나라가 미국이고, 또 우리 한국도 간호교육이나 사업의 대부분의 분야가 미국의 경향을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

은 역사적으로나 또한 우리들의 경험 특히 필자가 그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얻은 체험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또 한가지 필자의 생각을 굳히게 한 것은 오지음 자기네의 전통을 지켜온다고 고집하던 구라파의 간호사업계의 지도자들, 교육자들이 최근에는 미국으로 학위과정을 수습하러 번번히 오고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경식 교수(최근 미국에서 모자보전간호를 연구하고 돌아오신)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이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여기 미국의 간호사업의 近代의 경향을 잠깐 훑어본이 변천하는 現代看護의 경향을 논하는데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전(191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5년제, 학사학위를 받는 대학과정이 New York에 있는 Columbia University의 Teacher's College와 New York의 Presb-

byterian Hospital의 School of Nursing 과의 合同으로 발족되었다. 그 후 오늘날까지 그들은 대학과정으로서의 사회적 위치와 가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왔으며, 그 결과가 간호교육과 사업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반을 든든히 함으로써 많은 공헌을 하였다. 진실로 이 사실이(대학과정제도 설정) 미국의 간호 사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문적체계와 교육의 기반을 든든히 한 시발점이라고 하겠다.

1940년부터 50년대까지 이 시대는 저들의 간호사업과 간호교육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문제들을 大別하면

첫째는 간호교육의 문제로서 대학제도의 간호학교와 병원간호학교의 기본적 교육목적과 원칙은 무엇인가? 또한 교과과정의 내용을 어떻게 구별하여 설정할 것인가? 등이 주 문제였고

둘째는 간호업무의 문제로서 간호의 실무자의 기능은 무엇이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體得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변천 진보하는 사회와 과학적 지식에 직면하여 관련된 간호업무의 변화와 진보해야 할 行爲에 대하여 일하면서 간호원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게 할까? 그 교육은 어떻게

進行시킬 것인가? 등이며

셋째로는 간호업무나 간호교육의 문제에 대한 연구나 조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 들이었다.

이 시대에는 자기들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였다는 點에는 發展하는 시기라고 생각되며 한편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한국의 오늘날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1950년에서 부터 60년까지(20세기 半葉) 이 시대는 미국의 간호교육과 업무 및 간호학 자체의 기반을 든든히 닦고 학문으로서의 또한 사업으로써 독립하는 시기였다고 보겠다.

Ester Lucil Brown은 National League for Nursing 이 New York, Carnegie 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 자금으로 연구조사를 하였는데 이는 간호업무와 간호교육에 대하여 무엇이 社會에 대하여 최선의 것인가? 하는 관점을 확립시키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로 "Nursing School at Mid-Century"라는 Report를 내어서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 Report에 하여금 마땅히 社會와 깊이 결합되어 있어야 할 간호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어 왔던 간호사업과 社會와의 교량을 놓아주게 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간호원으로서 하여금 자신의 社會의 最善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간호사상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 뒤를 이어 여러가지 종류의 간호사업의 문제가 속속 조사를 통해 검토 분석되었고, 연구 결과 해결을 지어 나가게 되었다.

1960년부터 현재까지는 간호사업에 종사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변천을 새롭게 재인식하고 그들은 그들의 사업 즉 간호업무와 교육의 현단계를 시점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번 조사하고 평가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뚜렷한 기준과 기반을 든든히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이 기준을 향해 목표달성을 위해 저들이 서로一致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으나, 하여간 확실히 알기는 이 시점은 간호사업의 원대한 행동과 계획을 세워서 달리는時期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사업에 뜻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member들에게 있어서는 확실시되는 장래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한다.

看護의 概念의 變遷

1950~60년, 이 시대는 第二次世界大戰 후 급격한 社會的變化로 간호사업에도 영향을 주어 간호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社會의 요구, 사회적 변혁, 전문적 고차 과정의 進步的 변화등이 불가불

하였다.

이 시대에까지도 간호원 지도자들의 생각은 Florence Nitingale의 시대부터 간호사업에 社會에 대한 책임이나 문제는 간호원들 끼리만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고집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첫째로 물론 모든 전문직은 자신의 책임과 이에 대한 학문적인 분야에 自治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논하고자 한다.

둘째로 따라서 간호사업의 특수전문분야는 전문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개념은 변화해야 할 수 밖에 없는 時點에 當面한 것이다. 간호원단으로써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차차 인식하게 되었다.

필요한 문제들 중에는, 의학, 정치, 교육, 行政 및 경제등으로 분열되게 되었으며, 이런 문제는 他분야의 원조를 받는 것이 賢明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醫學, 社會學, 政治學, 經濟學, 교육학계의 권위있는 사람들과 간호원 대표들은 간호 행정, 간호 교육, 보건 간호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개혁 시대가 있어서의 간호사업의 역할을 규명하여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췌

員會를 “Committee on Function of Nursing” 이라고 하고 同委員會는 “A Program for the Nursing Profession”이란 보고서를 마침내 내게 되었으며, 이 program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간호 교육, 행정, 사업의 지적된 결과의 實行은 오늘날의 미국의 간호 사업 발전에 기반을 가져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report의 대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줄로 알아 여기 논해 보고자 한다.

그 연구의 내용을 대략 살펴 보던

1. 간호원의 막대한 부족의 원인을 규명했고 그것의 重要要素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내다보는 10년 동안에 막칠 간호원 부족의 격화를 예견했고, 이 진단에 대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였는데, 이것이 곧 간호의 보조역할에 대한 문제에 착안을 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중요제안으로서는 간호의 기능을 두가지 group으로 나누어 즉 전문직간호원의 영역과 준간호원의 영역으로 분류한 것에 있다.

2. 이렇게 간호원의 분야가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의학분야에 있어서도 그 일의 분야가 복잡하게 분류되어 Nursing team, Medical team 기타 분야에도 team이 조직되게 되므로 간호원과 Medical team 및 타과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개선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연구하게 되었고 따라서 간호원의 위치를 뚜렷하게 규명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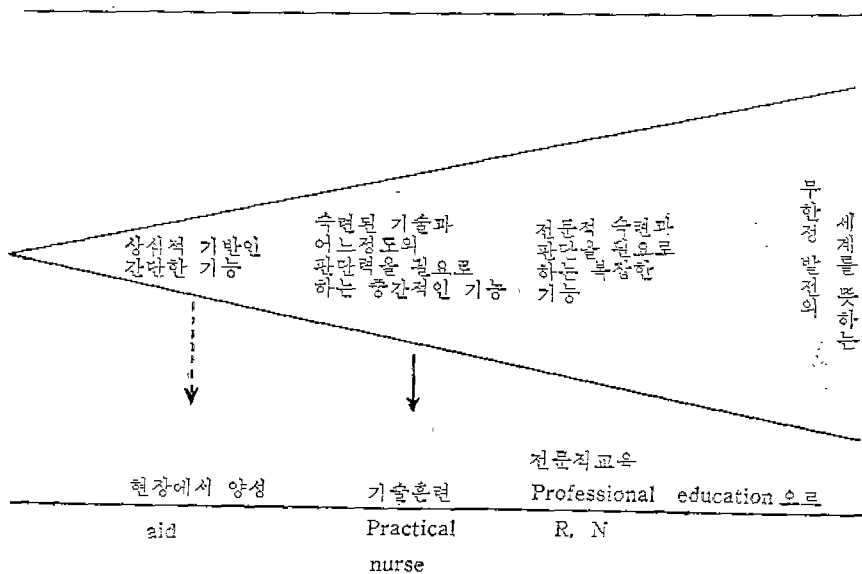
3. 간호집단 (nursing team)내의 전체의 구성요원인 각종 group들의 적합한 관계를 설립하여야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특별히 지적한 것은 “전문직간호원은 4개년 과정을 완려할 것이다”라는 등의 것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이 위원회는 자기들이 제출한 Report를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 여기서 파생될 (우려가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예측하여 이를 중류별로 연구제목으로 지적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하도록 제안 (recommendation)을 첨부하였던 것이다. 위원회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간호의 기능”이란 광범한 연구를 위하여 Study Group이 조직되었는데 바로 이는 1961년에 창설된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Dept. of Nursing이 이 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目的은

“보다 효과적인 患者中心의 간호를 할 수 있게 병원의 간호요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가능성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환자중심간호”의 주장이 거듭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Montag는 Nursing Profession



「간호직의 개념은 하나의 連續體나 또는 Spectrum의 分光의 범위를 가진 것이다」로 圖表化했다.

이 도표는 다음과 같은 관련성을 나타낸다.

이 개념이 內包하고 있는 뜻은;

실습이나 간단한 일상화된 기술의 숙련에 구애되기보다 더 나아가 환자의 문제를 과학적 원칙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專門的 責任을 말한다. 교육학자 Ralph, Tyler는 말하기를 어떠한 직업이나 이것이 Profession이 되려면 일상화된 기본 조작이나 숙련보다는 주요원칙과 개념을 人爲的으로 應用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복잡한 책임임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Tyler의 말과 같이 Professional Nurse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Profession의 대열에 어깨를 겨누려면 자기의 간호활동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은 환자의 문제를 발견하고 Nursing Care Plan을 하고, 이를 시행하고 평가함에 있어 科學的 諸般 原則을 적용하는 이해력과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질병이나 치료를 본위로 한 간호만으로는 만족한 간호라고 자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의 등록된 간호원의 大多數가 치료 및 질병 증상의 간호를 배운 사람들이며 환자의 요구가 무엇이냐의 충족보다는 병원의 必要한 것을 충족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한 간호교육 제도에서 태어난 간호원이라 생각하여 여기에는 교육의 重點을 질병과 그 상태에 두고, 人間으로서의 환자에게는 거의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에서는 現在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여기 전문직업적 체제를 확립시키려는 운동이 전개되고 강력히 주장되고 있는 현황이다.

기능적간호에서

포괄적 간호로

Brown은 말하기를;

Professional Nurse의 넓은 사야는?

高度의 교육에 의해서만 자라게 된다. 이 교육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교육이기는 하지만 서로 깊이 integrated된 두가지 方法이 있다.

첫째는 문제분석 능력, 필요자료 수집 능력, 論理的 결론의 결정하는 능력, 原理나 理論을 理解하는 능력 등의 여러가지 ability를 항상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를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문적 생활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 훈련을 하는 증류의 것이다. 단 이 훈련은 병원사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社會의 넓은 分野에 걸친 Nursing Service라야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이러한 방향으

로 간호교육을 실시하여 오프로 과거의 위치에서 계속 교육이 개선되어갔다. 그리하여 오늘날 간호교육은 社會的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또한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社會경제적 간호 더 나아가서는 교육적, 심리적, 全人格的 간호를 하기 위하여 차차 고도로 改善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全人格的看護(comprehensive nursing care)는 個別的 간호에 重點을 두는 것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비록 같은 진단을 받은 환자라 할지라도 그가 지닌 문제 또는 그 문제해결방안으로서의 환자의 요구의 충족 등은 다 개별적으로 간호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간호 문제를 중요시 하여 논하는데 이 문제의 해결이란 즉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문제 발전과 규정을 중요시 한 나머지 National League for Nursing에서는 이 문제연구위원회를 모아 환자들이 가진 일반적인 문제를 21개 조항으로 규정을 지어 선포하였으므로 이는 간호와 간호진단에 많은 도움을 내켜주게 되었다. 이는 "List of 21 Nursing Problems"로 常通하게 되었고, 특히 우리가 쉽게 찾

아볼 수 있는 곳은 Abdellah의 저서 "Patient-Centered Approach To Nursing" 의 첫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21개의 문제를 규정하게 된 경위는 각 간호학 분야의 사람들이 제시한 간호문제를 중 같은 성질에 것을 같이 묶어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마침내 21개의 조항으로 간추려서 제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환자들의 문제는 여기 포함되게 한 함축성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오늘날 간호에 종사하는 이들을 경진과도 같이 사용되게 되었다.

Progressive Patient Care (P.P.C로 사용한다)

한편 환자 중심의 간호의 개념에 입각한 계획으로서 병원이나 지역사회 Service가 환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하여 미국 보건성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3년간 연구를 한 나머지 이 P. P. C의 계획이 수립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은 단기간에 보다 나은 환자중심의 care를 하여 의료 및 Nursing Service를 위한 요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의료기구나 시설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인 것이다.

즉 Progressive Patient Care는

환자를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 단위로 나누어 care를 하는 것이다.

1. Intensive Care
2. Intermediate Care
3. Self Care
4. Long-term Care
5. Home Service Care 혹은 Hospital Service Care라고도 한다.

이것들은 모두 환자를 중심으로 한 개념에 근거를 두고 환자를 이상과 같이 분류하여 여기에 적절한 간호와 치료를 하자는 것이다.

· 끝 맺는 말 ·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두가지의 사고방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첫째는 간호를 기술적인 실무중심의 직업으로 생각하여 간호를 주로 service의 계획, 즉 실무라는 직접 목적에 결부시켜서 생각하여 "일을 해 치운다" 든가 "환자 처치를 한다" 하는 식의 생각이다. 이런 일을 함으로써 간호의 큰 책임을 완수하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하면 이것은 곧 질병 중심이요 Procedure 중심으로 간호의 기초교육을 하고 거기다가 약간의 관리의 기능을 곁들여서 교육을 하면 당면한 실무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직결되는 생각이 되겠다.

둘째의 사고 방식은;

유자격 전문직 간호원은 환자에게 직접 직결된 간호를 하되 깊이 환자의 문제를 파고들어 가서 간호를 하려는 생각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간호의 목표는 환자의 요구에 기초를 둔 환자 중심의 것이어야 하겠으며, 또한 이것을 위한 간호계획은 단지 당면한 계획 뿐 아니라 장기적 계획에까지 주력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간호원은 독립한 하나의 기능자로서 간호의 진단(Nursing Diagnosis)을 내리고 科學的 지식의 근거를 두고 간호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nursing activities)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정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와 같은 지식과 기술이 향상 발전되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사고 방식에 입각하여 간호 교육을 생각한다면 간호학은:

1. 그 기초교육은 모든 환자의 문제를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내용이라야 하겠고
2.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간호의 방법(way)과 기술을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어야 하겠으며
3. 모든 간호의 원리와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요긴한 것이어야 하겠다는 것이 되겠다.

이런 信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교과과정의 편성과 Nursing Service의 할당의 접근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 하게 될 것이다.

실로 이 후자의 생각은 未來의 가능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현실점을 어떤 것으로든지 단안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의료가 술자로서 의사나 다른 요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로 후퇴하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간호계획이 보전문제에 대한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구 즉 인간의 기본 요구와 기타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고 이것을 직접 간호활동에 옮기게 하는 진보의 자리에 서겠는지? 즉 간호의 핵심과 그 영역을 이렇게 얇은 훈련 받은 간호원에게 넘겨 주는 경향으로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고도의 기술적, 사회적 능력이 필요한 직접 간호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드릴 것인지? 우리는 깊이 판단하여 앞을 바라보고 앞에서 말한 Spectrum의 分光의 범위 중에서 무한대의 발전을 뜻하는 세계를 향하여 계속 나아갈 것인지 이것은 바로 우리들 뜻있는 간호원들의 생각에 달린 중극의 과제라고 보겠다.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 학문 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神學에서도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도를 닦는 것

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악 세상에 깊이 파고 들어 죄와 더불어 살면서 세상과 활하여 살면서 기독교의 궁극의 목적을 달성해 보자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24시간 환자 곁에 존재하면서도 너무나 환자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우리도 좀더 환자의 문제에 뿌리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와 같이 생각하고 여기에 요구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야 하겠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의 배우는 것이나 연구하는 것 일하는 것 모두가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들의 교육이나, 연구와 노력의 결과가 직접 행동으로 환자를 위해 나타나야겠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장했어야 마땅한 시기가 아니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할 때 더욱더 앞으로 발전하여야겠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간호사업에 발전이 있겠는지 의문이다. 전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무한대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통일된 개념과 간호의 철학으로서 이것을 간호활동으로 나타내는 방향으로 지향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하나의 말을 첨부하고자 함은 미국의 간호사

업발전에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은 그들은 자기네의 문제를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 일을 시작할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연구로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깊이 신임하고 이 방향을 향하여 철저히 改善되는 方向으로 만났을 무릅쓰고도 장애의 발전과 목적을 향해 꾸준히 걸어간 발자취, 그 自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마지 않는 바이다.

참고 문헌

- Lambertsen, E. C., *Education for Nursing Leadership*, J. B. Lippincott Co., Philadelphia, 1958.
- Abdellah, F. G. and others *Patient-Centered Approaches to Nursing* Mcmillan Co., New York, 1960.
- Sholtis, L. A. and Bragodon, J. S., *The Art of Clinical Instruction*, J. B. Lippincott Co., Philadelphia, 1961.

<간호문제연구법을 위한 집담회에서>